

그러면서 동시에 라 부르도네 씨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 하지만 폴은 손을 거두고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네.

내 댄에는, 박복한 벼들의 거처에 머물며 그 둘에게, 그리고 또 폴에게 여력이 되는 한 모든 도움을 주고자 했어. 그렇게 3주가 지난 끝에 폴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나, 몸이 힘을 되찾는 것과 동시에 그의 비통함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네. 그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고, 시신은 빛을 잃어, 내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면 뭐든 다 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네. 거의 죽어가던 라 투르 부인은, 폴에게 자주 “아들, 내가 널 보는 동안만큼은 사랑하는 비르지니를 보는 것이라 믿으련다”라는 말을 했지. 이렇게 비르지니라는 이름만 들으면, 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부인을 멀리하곤 했네. 그의 어머니가 자기 친구 곁에 와달라고 몇 번씩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는 혼자 정원에 가서 틀어박혔고, 비르지니의 코코넛 나무 아래 앉아 그녀의 샘물에서 시신을 떼지 못하고 있었네. 충독이 붙여준 외과의사는 폴은 물론 두 부인도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는데, 우리에게 말하길, 폴을 절망적인 우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좋아하리라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하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그의 화를 돋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네. 그러면서 그가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침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뿐이라고 했지.